

# 원·달러 환율 트럼프 당선 전으로

### 최근 4거래일 동안 24.2원 하락 1130원대로 떨어져서... "1130원대 저점으로 횡보 지속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 하락세로 전환, 미국 대선 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재정 확대 정책과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 요인이어서 환율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1162.1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4거래일 동안 24.2원이나 하락 1130원대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떨어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이던 지난해 11월8일(1135.0원)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1210원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후에 '강달러가 과도하다'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에 구두개입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에 시동을 걸면서 달러는 약세로 전환했다.

향후 환율의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37.9원)보다 1.9원 내린 1136.0원으로 출발했다가 유렵연합(EU)의 정치적 확실성 이슈가 제기되면서 1140원대로 올라섰다.

또 이번주 후반 미·일 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주의 이슈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4월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월대보름엔 건강한 부럼'** 농협유통이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코너에서 '정월대보름 먹거리 모음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 하락 압력이 우세해 1130원대를 저점으로 횡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성운 현대선물 연구원은 "3월 FOMC 전까지는 금리인상 이슈 자체가 수면 아래로 잠복하고 보호무역주의 이슈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지난 한달보다는 완만하게 저점이 더 낮아질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번주 후반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하락 압력이 있지만, 수입업체의 결

재수요가 있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입세가 둔화되고 있어 1130원 부근에서 지지세를 확인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원화 가치는 달러 뿐만 아니라 엔, 위안, 유로화 등 주요 통화와 비교해서도 절상되고 있어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1월 초와 비교하면 원·달러 환율(1208.5→1137.7원)은 5.85%, 원·엔 환율(100엔당 1134.45→1017.48원)은 1.64%, 원·위안 환율(173.26→167.20원)은 3.50%, 원·유로 환율(1272.37

→1222.74원)은 3.90%씩 떨어졌다.

미국 대선 이후 아시아 신흥국 중 예외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 외국계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됐기 때문이다.

1월 말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501조9600억원으로 1년 만에 24.26%나 늘었다.

민경원 현대선물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회복되다보니 대내외 금리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을 기대한 꾸준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K5 '스페셜 에디션' 출시

기아차, 2.0 가솔린 2625만원 · 1.6 가솔린 터보 2730만원

기아자동차는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K5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K5 스페셜 에디션은 ▲2.0 가솔린 ▲1.6 가솔린 터보 엔진 모델에 적용했다.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드라이빙 세이프티 PACK'의 주요 사양인 '후측방 경보시스템'을 기본화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기존 K5 주력 트림인 '포레스티지'에 운전석 통풍시트를 추가하고, '노블레스' 트림 기본 사양인 LED 포그램프, 운전자 세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와 '시그니처' 트림 기본 사양인 LED 헤드램프, 18인치 휠타이어를 탑재한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추가사양 대비 낮은 가격 인상을 통해 고객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2.0 가솔린 모델의 스페셜 에디션의 가격은 포레스티지 트림보다 120만원 높은 2625만원이다. 그러나 약 175만원 상당의 고급 사양들이 추가 적용돼 실질적인 가격은 56만원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 스페셜 에디션의 가격은 포레스티지 트림보다 120만원 높은 2730만원이다.

아울러 기아차는 K5 스페셜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오는 3월말까지 K5 스페셜 에디션을 구입 및 출고시 남성정장 브랜드의 맞춤형 차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시스

## 지난해 펀드 수탁고 462조 사상최대치

지난해 펀드 수탁고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펀드는 부동산 펀드였다. 부동산 펀드 수익률은 평균 펀드수익률보다 212.8% 높았다.

금융위는 7일 2016년 펀드시장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지난해 수탁고가 46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보다 11.8%늘어난 액수다. 펀드 평균 수익률은 2.82%였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

8.82%로 가장 높았다.

사모시장은 공모시장 규모를 넘어섰다.

공모펀드는 대기성 자금 증가로 머니마켓펀드(MMF)가 늘어났지만 주식형 펀드의 감소로 1조6000억원 감소한 2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사모펀드는 안전성 높은 채권형 펀드와 부동산·특별자산 등 실물펀드 투자로 50조4000억원 증가한 250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뉴시스

## '1사1교 금융교육' 46.5% 참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까이 '1사1교' 1교(校) 금융교육'에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7월 시작한 1사1교 금융교육에 지난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46.5%인 5373개 학교가 4107개 금융회사와 결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교 2369곳(39.5%), 중학교 1927곳(60.0%), 고등학교 1067곳(45.3%), 기타 대안학교 등 10곳이 1사1교 금융교육에 참여했다.

금융회사는 은행 3739곳(61.1%), 생명보험사 1254곳(20.5%), 증권사 467곳(7.7%), 손해보험사 466곳(7.6%), 여신전문금융회사 75곳(1.2%), 저축은행 15곳(0.3%) 등의 순이다. /뉴시스

## 6대 은행 주택대출 평균금리 5개월 연속 상승

지난해 12월 평균 대출금리 3.45%... 5개월 동안 0.76%p 급등

6대 주요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6대 은행이 지난해 12월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택대(만기 10년 이상)의 평균금리는 3.45%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평균금리가 3.58%로 가장 높고 기업은행(3.47%), 우리은행(3.41%), KEB하나은행(3.38%), 국민은행(3.30%) 등은 뒤를 이었다.

6대 은행 주택대 평균금리는 지난해 8월 상승세로 전환한 뒤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7월 2.69%였던 평균금리는 8월에 2.74%로 반등했고, 11월에 3.27%를 기록한 뒤 12월에3%대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최근의 흐름은 평균금리 산정 기준인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크게 오른 때문이다.

지난 7월 1.44%였던 6대 은행의 평균 기준금리는 12월 1.90%로 불과 5개월새 0.46%나 상승했다.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고, 같은해 7월1일 1.44%였던 금융채 5년물 금리는 12월30일 2.03%로 0.59%포인트나 급등했다.

각 은행이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는 가산금리도 지난해 7월 1.25%에서 12월 1.55%로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분간은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 "한국 GDP, 2050년 세계 18위로 하락"

PwC 인터내셔널 장기 전망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50년에는 세계 18위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네트워크인 PwC 인터내셔널이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32개 국가의 구매력평가 지수를 토대로 잠재적 GDP성장률을 분석한 결과다.

7일 '2050 세계경제 장기전망·세계 경제 순위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구매력 기준)는 작년 세계 13위에서 2030년 14위, 2050년에는 18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명목상 GDP는 작년 11위에서 2050년에는

13위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DP 1위인 중국은 2050년에도 정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2위와 3위인 미국과 인도는 2050년엔 자리를 맞바꿀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2050년까지 세계경제의 GDP는 매년 2.5%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42년이 되면 지금의 두배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선진경제권에서 신흥경제권으로의 경제적 이동 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브라질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터키 등 7개 신흥경제국(E7)은 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뉴시스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